

‘대한영양사회’등 정부 제출 의견마련

“점심급식을 먹으려고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식단에 떡볶이 핫도그를 준비할 때는 양을 좀 넉넉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을 하니까 편식을 안 하게 돼 제일 좋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 학교에서 열린 ‘급식에 관한 학부모간

담화’에서 쏟아져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이었다.

학교급식의 확대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영양사회(회장 조정순)와 한국영양학회(회장 채범석)는 수일내로 정부쪽에 제출할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한 본회의 의견’

을 마련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주무부서가 올해초 체육부에서 문교부로 이관된 뒤에도 문교부내에 따로 전담부서가 마련되지 않아 학교급식의 질적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급식 업무 전담부서 신설 △교사와 학교급식 요원에 대한 영양교육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교급식 확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

문교부로 이관된 전담부서조차 없어 ‘부모 소득별 차등부담’ 도입등 주장

국내의 학교급식의 대상및 실시현황

국 별	대상및 실시현황	경 비 부 담
한 국	·국민학교10%(5회/1주)	·시설비, 인건비:국고부담 ·식품비:도서벽지형-전액국고 농어촌형-1/3국고 2/3학부모 도 시 형-전액학부모
일 본	·유아원 32.8% ·국민학교 98.0% ·중학교 86.1% ·특수학교 80.0% ·야간고등학교98.4% (5~6회/1주)	·시설비, 인건비:국고-지방자치단체 50%, 중앙정부 50% ·식품비:전액학부모
대 만	·국민학교 33.7% ·중학교19.8%(5회/1주)	·시설비:국고 ·연료비:120원/학기 학부모부담 ·인건비:100원/학기 학부모부담 ·식품비:전액 학부모
미 국	·유치원 17% ·국민학교 99% ·중학교 83% ·야간학교 91% (점심급식 100% 아침급식 30~40%)	·시설비:지방교육당국 ·식품비:지방교육당국 1/3 학부모 2/3 ·현금 및 물자제공 합해서 전체비용의 약 1/4을 담당:연방정부 ·나머지 3/4:학생·주정부·지역사회로부터 기부받음
영 국	·국민학교 69% ·중학교 56% ·특수학교 96% (점심급식 100% 아침급식 일부실시)	·시설비, 인건비:지방교육당국 ·식품비:지방교육당국 및 학부모

는 재원확보를 위해 같은 학교내에서도 학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식품비를 차등부담하는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각 학교별로 급식소는 정부에서 지어주지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정부에서 나오는 비용은 영양사 1명, 기사 1명을 정규직으로 쓸 수 있을 뿐 조리를 담당하는 4명의 여성인력은 일당 8천여원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생 1인당 급식



비는 1일 6백70원, 따라서 정부지원금 확대와 함께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차등분담하는 방법으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고소득층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영양사회와 한국영양학회는 이들 의견을 종합해 21일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의의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학교급식의 중요성 △국내 학교급식의 현황 △학교급식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등을 집중토의할 예정이다.

9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전체 7천6백39개교 가운데 10%인 7백65개교로 전체학생의 6.1%인 29만7천8백37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경 기자>

서울 영등포 당산국민학교 사례

고구마줄기, 당근, 콩나물, 쇠고기를 섞어 기름에 볶은 비빔밥 재료와 고추장, 달걀구이. 이것이 기자가 찾아간 날의 당산국민학교 점심시간 차림표였다.

12시20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어린

이들은 복도로 달려나와 식판을 하나씩 들고 일일 식사당번으로 나온 어머니들이 밥과 반찬을 빨리 나눠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전 국수하고 자장면이 제일 좋아요”(송지선 1학년) “전 급식

이면 뭐든 다 좋아요”(양승준 3학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역시 김밥, 떡볶이, 비빔밥 등이라 식단을 짜기에 애를 먹는다.

“아이들 편식습관 없어져 좋아”

영양사 정희숙씨는 “그날 많이 남긴 음식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많이 남겼지만 영양상 필요한 식품은 조리방법을 바꿔 다음 식단에 보완하지요”라고 한다.

학교급식을 반기기는 학부모들

이 학생들보다 더하다. 특히 이 지역은 맞벌이부부가 많은 공단 지역인지라 학교급식이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학기부터는 오후 수업이 없는 1학년생들도 꼬박꼬박 점심을 먹여 보내 학부모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이날 학부모 식사당번으로 나와 어린이들에게 국을 떠주는 일을

맡았던 1학년생 학부모 구선옥(33)씨는 “한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일하는 것이 신경쓰이긴 하지만 매일 도시락을 안싸도 되고 애들 편식 습관도 없어지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90.9.19